

綜合建築 35년에 즈음하여

尹錫祐 /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序

어느새 코트를 입어야 할 계절로 바뀌었다. 새삼스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금년 겨울은 춥지않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한해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니 종합건축이 지나온 35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결코 긴 세월이 아닌듯도 하다. 흔히 우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할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또 미화시키는 버릇을 갖고 있다.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하려는 人間 本性和 현실에 對한 불만족을 옛날로 회귀시켜 카타르시스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주위에서는 종합건축이 35년이나 되었으니 그 연륜으로만 생각해도 대단한 歷史라고들 했다. 한국건축의 “메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몸담고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린 항상 새로움에 직면하고 그만큼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때문에 더더욱 외로운 싸움을 해 왔는지도 모른다. 4반세기를 綜合에 몸담으며 이 올라타가 뭇가모를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음을 항상 느껴왔다.

때로는 作業에 몰입해 時間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걸맞지 않는 현실에 울분과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며 이젠 「종합」을 떼어내고는 建築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사람의 운명이란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인것 같다. 35년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보다 전후 지금까지의 세월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그리고 기억나는 일들을 적어 보기로 한다.

• 綜合建築과 1950년대

建築史的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近代建築은 西洋의 그것과는 시기적으로나 형성과정상 무척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찌면 그런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 고전, 낭만, 절충 등의 사조는 쇄국정치와

西學배제로 수입될 틈이 없었고 20 세기 초반의 근대건축운동도 일제에 의해 한번 걸러지고 수입된 까닭에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해방이전까지 한국민의 손으로 설계되어진 건물은 수를 헤아릴 정도로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존폐위기를 겪은 전쟁을 치르고 난후 우리의 도시는 폐허화되다시피 했다. 綜合建築이 처음 닦을 올린때다. 당시 이천승선생이 설계한 종로2가 YMCA 맞은편 영보빌딩에서 몇개의 설계책상을 놓고 폐허복구작업부터 시작한 때가 1953년 9월 7일 월요일이었다. 이러한 태동의 계기는 당시 설계사무소의 不在상황에서 건축과 출신의 연구실 및 작업실의 필요를 느낀故 김정수선생과 일제치하에서부터 작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이천승선생과의 의견이 일치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듣고 있다. 이 시기에 綜合에 관계하신 분이 이천승, 김정수선생을 비롯하여 최종환, 지철근, 윤정섭, 이휴선, 강진성, 이승우氏 등이었으며 이균상, 박인준선생이 고문의 역할을 맡았었다. 초기 몇년을 복구사업에 할당하고 그후 신신백화점(1956), 명동 성모병원(1958), 국제극장(1957), 시민회관(1956), YMCA 본관(1960), 장충체육관(1960) 등을 초기 작품으로 남겼다. 이때의 건물들이 매우 합리주의적인 경향을 띠었는데 Mass 에서는 대칭적인 안정감이 작품전반의 기초를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국내의 많은 현상설계에 응모했는데 그중 생각나는 것이 남대문 교회(1954. 1등, 2등당선), 이화여자 대학교 강당(1955. 1등당선), 공군본부청사(1956. 1등당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사 (1957, 1등당선) 정부종합청사(1967. 1등당선) 등이다. 막걸리값 정도되는 월급과 설계도구도 변변찮은 때였는데 밤을 새어가며 작품을 해낸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내가 입사한 것이 종합건축탄생후 10여년이 지난때였는데(종로시절의 후반기였다) 선배님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주변에서 사무실에 어떤 사례라도 할라치면 이천승

선생께서는 꼭 필요한 물품—스케일
△자등—으로 대신하도록 하셨다고 한다.
현상설계에 응모하는 방법도 사무실내에서
각자 여러가지의 案을 만들게 하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토론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안영배, 송종석팀은 가히 명콤비였다고
한다.

• 明洞에서—

종로생활 16년동안 기라성같은 선배님들도
많이 거쳐가셨고 에피소드도 많은데 점잖은
지면에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고 1960年代
후반부터 시작된 명동시절을 회고해 본다.
이때는 국내 상황도 많이 호전되었고 16년간
종로에서 닦아온 터(?)도 있고 지금의
이승우 선생님의 패기도 대단해서 꽤많은
작업을 했던 때이다. 주요작품은
한국자동차보험(1969),
종합교통센터(1970),
ASPAC 문화센터(1970), 한국과학원
전체계획(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1972), 울산공대
도서관(1972), 국회의장공관(1973),
서부역사(1973), 서울대학교
실내체육관(1973),
제2정부종합청사(1974),
미즈백화점(1975), 한국증권거래소(1975),
재외공무원자녀 기숙사(1977), 신라호텔
영빈관(1977), 사우디아리아드 스쿨(1977)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주로
철근콘크리트의 가소성을 나타낸 건물과
世人들이 얘기하는 극히 종합적인(?)
건물들로서 綜合의 어휘가 깊히 자리한
때였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견재한 이
시기의 작품들을 보며 남다른 감회에
젖는것은 모서리 모서리마다 땀뻘이
금새라도 다시 배어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까? 이때 같이 고민하던 동료들이 이제
각자 중견작가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건축에 심취하고 있음을 보면 그시절이 무척
중요했던 때임을 새삼 느낀다.
脈, 흔히 우린 그것을 脈이라고 불렀다.
개개의 특출한 個性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 개성들이 뒤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어도 연연히 지켜지는 집단의
性格을……, 좀더 거창하게 얘기해서
“전통”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명동을 떠날때는 이미 종합이
태어난지 25년이 지났으니까 초기의
선구자이신 선배님들은 대부분 자리를
달리하셨지만 우린 그 “脈”을 가지고
낙원동의 新사옥으로 옮겨왔다. 1970年代
후반이었다. 정치도, 경제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건축인의 사고방식도, 자세도,
그리고 건물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 낙원동의 사옥을 지키며

애벌레는 해마다 껍질을 벗고 있다.
거듭나고 있는 기간이라는 생각도 든다.
작품의 규모로 보면 더 커지고 어려워지고
새로 종합에 발을 들여놓는 젊은 건축학도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작품에 임한다. 복잡한
세상을 옆에 두고 어찌던 더 애처롭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더 전문적인
노우하우가 필요해졌고 체계적인 작업방식이
도입되어야 했고 최신 기자재를 이용해야
했다. 항상 시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쁜
세상을 가끔씩 원망도 해 본다. 여기서
이룩한 우리의 作品은 옛날의 것도 아니고
지금의 숨결을 아직 지니고 있으니 새삼
해고할 이유가 없는 듯 하다.
오늘 다시한번 35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소년기를 제한 내 人生 전부다. 어떤
등산가는 고지에서 항상 허탈함을 느낀다고
했던가. 그리고 더 높은 봉우리를 발견해야
다시 살고 싶은 활력과 도전감에 사로
잡힌다고 했던가. 끝없는 봉우리의 연속,
더높은 봉우리가 있음을 항상 알기에 오늘도
지칠줄 모르고 책상의 불을 밝힌다.
그동안 綜合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한다. 지금의 종합이 있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노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리라.
또다른 35年을 맞이하고자 어둑어둑해지는
낙원동의 모퉁이를 지키다. 지나간 時間에
對한 알수 없는 향수를 접어둔채….